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을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청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가치관, 결혼, 출산, 행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I. 서론

인구변천 과정의 초기에는 출산율이 높으나 사망률 역시 높아 인구증가율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도 아주 젊다. 이후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나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이 발생하면서 196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그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3% 수준에 근접하여,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1960년대 초 정부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약 35년에 걸쳐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결과로서 출산율이 감소하여 2005년에 세계 최저 수준(합계출산율 1.08)으로 나타나, 이론적으로 자연적 인구 대체는 50% 정도만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하였다. 이와 달리, 우리사회에서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미래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송다영, 2005; 장혜경, 2003 등).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성분업적 역할이 지속되고 육아인프라가 미흡하여 일-가정의 양립이 곤란하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학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 식 설명방식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Preston 1987; Lesthaeghe and Surkyn, 1988; Pollak and Watkins, 1993). 신가정경제이론의 취약점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나, 집단간 차이와 역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 변화는 경기 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즉, 가치관 변화는 언제나 물질적 여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조건이나 기회구조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많은 서구 학자들은 피임법의 보편적 보급으로 출산율이 아주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인구현상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상에서 유지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유럽사회의 출산율이 1960년대에 들어 대체수준 이하로 보편화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들었으며, 이를 '제2의 인구전환(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으로 가치관 변화를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즉,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만혼이나 비혼 및 출산 기피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들을 토대로, 본 고에서는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치관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만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관이 개입되었을 때에 미치는 영향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한다. 이러한 연구는 출산 및 결혼 행태에 관한 가치관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 선행연구 고찰

여기에서는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살펴보고,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들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한다. 특히, 이들 가치관과 저출산현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대립적인 두 주장을 통해,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이어서 결혼 및 출산 행태와 인구·사회적 현상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분석의 변수들을 설정한다.

1.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

가치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개인 및 사회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치는 부분적으로 지적인 동시에 감정도 포함하는 정신적인 구성 개념으로,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된다(최연실, 1995).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김태길, 1996),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이념 내지 신념이다(정원식, 1969). 가치관은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더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한다(유영주 외, 2000). 가치관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에까지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1998).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가족들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화가 시작되어 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

고 또 스스로 바람직한 규범체계나 가치체계를 내면화시킴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가치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시킨다(유영주 외, 2000). 가치나 가치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 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가치관은 한 때의 평면적인 총화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련 및 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한 세대(cohort)는 출생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역사적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세대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위 양식을 특징짓게 되는 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오면(김태길, 1996),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를 초래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곤 한다(김경신, 1998). 현재 한국사회에는 집단주의, 권위주의, 숙명적 자연관, 인본주의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주의, 평등주의, 정복 지향적 자연관, 물질주의 등의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상황에서,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김경신, 1998). 이러한 가치관들 중에는 기본적인 것으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이 포함된다.

가. 결혼가치관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회적으로 정한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례는 도덕과 이상, 관습의 총체이며 사회적 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로서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다(이정우 외, 2000). 인간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며, 이 창조된 가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또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다(김혜선·

박혜인·옥선화, 2002). 오늘날 결혼은 남녀가 평등한 가운데 상호신뢰와 존경 속에서 공동생활의 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인 종족을 보존하고 사랑과 신뢰, 양보와 협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이룩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오환일·김연화·정진희, 2000).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김경신·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 의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규범은 한국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특히, 여성은 결혼을 지위 부여와 지위 상승의 중요 통로로 여겨왔기 때문에,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김경신·이선미, 1998). 즉,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도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혜선·신수아, 2002). 그러나 최근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러 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이삼식·정윤선·김희경 외, 2005; 이삼식 외, 2006). 결혼관이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김두현, 1982) 있는 것이다.

한편, 성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합법적인 결혼보다는 애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중시한 경향에서 선택되고 있다(양명숙, 1996). 동거에 대한 가치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 동거는 전통적인 약혼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상호관계의 시험을 제공하므로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 반면, 최근의 미국, 스웨덴, 캐나다의 연구자들은 동거가 결혼을 붕괴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양명숙, 1996).

결혼 시기의 결정은 수입·기회비용과 같은 경제적 조건, 신체적 외모나

가임능력의 생물학적 조건, 성비 등의 인구학적 조건 등(이인수, 1994) 뿐만 아니라, 개인이 위치한 사회의 거시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한경혜, 1993). 모델(Model, 1980)은 연령의 사회심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연령을 내재화하며, 이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하게 느낀다고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령규범의 제도화는 각 사회의 자원의 분배나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결혼행동의 변화와 함께 소위 사회적 시간표 형태로 존재하는 결혼연령규범 또한 변화하게 된다(한경혜, 1993). 역할전이의 시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역시 변화하게 되며, 또한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 자체가 사회 내의 제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한경혜, 1993). 이와 같이 결혼전이 시기는 사회 규범상 결혼을 할 연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가족 내 집합적 변화나 거시적인 사회·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결혼전이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이인수, 1994).

박민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압박이 사회적으로 용납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이 선택되며,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르고 있다. 셋째, 개인의 욕구나 가치는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애정은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나 가족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신가정경제론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나. 자녀가치관

Becker(1960)는 소득과 자녀출산간의 정적인 관계를 예상하고, 자녀양육의 질은 부모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여정성, 1994). 그러나 Mincer(1963)는 남자나 미혼여성과는 달리 기혼여성의 시간배분 시 가사노동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시간비용이 출산과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 후 많은 실증연구들이 Mincer의 논의를 지지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는 다른 재화로부터의 효용과 자녀로부터의 효용 간에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추가자녀로부터의 만족과 이미 가진 자녀의 질적 추가적인 상승으로부터의 만족감을 비교한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자녀와 기타 상품에 대한 수요 양쪽을 다 증가시키지만 그 상대가 간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시간가치가 높아질 때 자녀생산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되며 따라서 가계는 자녀대신에 기타 상품의 생산을 증가시키므로써 일정한 만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서 선택과 교환의 이론(choice-exchange theory)이 이용된다(Hoffman & Hoffman, 1973; Esaterlin, 1975). 이 이론에 따르면, 개개의 부부들이 선택을 통해서 자녀로 인한 이점을 최대화하고 손실점을 최소화한다. 자녀로 인한 이점과 손실점이 같아졌을 때, 추가자녀를 가짐으로서 얻게 되는 만족을 대신해줄 수 있는 만족, 특히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

Erikson(1950)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성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생동적인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낳고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였다(권용은·김의철, 2004). Rabin(1965)은 부모가 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숙명적” 이유이다. 둘째는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타주의적” 이유이다. 셋째는 자녀를 갖는 것이 선(善)을 나타내 주고, 부모가 되는 것이 성인의 동족의식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도취적(narcissistic)” 이유이다. 넷째는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도구적(instrumental)” 이유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Roussel(1994)는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적 요인으로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로, 독일에서 ‘제2의 출산율 저하’는 가치관 변화 등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사회가 점차로 발전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자녀를 재산적 가치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던 다산현상이 가족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었다(유영주, 1988).

다. 성역할가치관

성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옴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의 성차별주의(sexism)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어 왔다(김경신·이선미, 1998). 이렇게 형성된 성 불평등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제한,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 언어나, 대중매체, 교육, 가족과 같은 주요한 사회 기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유지, 강화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서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각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주장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방식과 마찰을 이루게 되었다(양명숙, 1996). 여성은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역할분담에 의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편들의 여성취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회피로 부부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여성들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예 직장을 원하지 않게 된다(양명숙, 1996).

최근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 혼인, 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들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짐지워지는 결과에 기인한다(장혜경, 200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OECD 통계를 보면 보육시설 확충이나 남성을 포함한 부모휴가 확대실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같은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은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다영, 2005) 육아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경우에 아이를 가진 여성은 정규적인 직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맡게 될 수록 출산율과 여성취업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감소하기 때문이다(한유미·곽혜경, 2004).

2. 가치관 변화와 결혼·출산행태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 가족생활에서 혈통을 중시하여 왔다. 따라서 대부분 조기에 결혼을 하였으며, 출산은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 왔다(Kwon, 1977). 그러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한 입장은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권용은·김의철, 2004). 즉, 1960년대 이후 산업화·근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확산되면서 개인의 의식구조도 변화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생활, 사회관계 및 정신적인 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가정의 생활양식과 가족이 갖는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제도와 가족생활의 규범,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다른 한 입장은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즉, 출산율 감소나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적 징후의 발생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내 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송다영, 2005). 이러한 설명방식은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보육인프라 미흡,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 출산관련 건강수준 악화(불임, 자연유산 및 사산) 등을 들고 있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외, 2005). 자녀양육문제는 앞으로 가정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개인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며, 결혼이 더 이상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과 함께 자녀를 갖는 것이 삶의 순서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한편으로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William Axinn, Arland Thornton, 2000; 은기수, 2001). 따라서 결혼에 관한 행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둘러싸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올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성별분업, 성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등 단기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치에도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은기수, 2001).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가치관 및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와 결혼 및 출산 행위의 변화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06). 따라서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신가정경제이론식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변 수

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배우자의 선택이나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을 향한 개인적, 심리적 욕구가

다양하고 또한 시대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성장해 온 가정의 인습 등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의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김영옥, 1999). 즉, 종래의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상대방의 가문, 즉 상대방 집안의 사회적 배경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는데 비해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간의 개인적 배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하기를 더 꺼려하는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South, 2001), 국내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중요시하고, 결혼생활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혜선·이정읍, 2003). 남자의 경우 안정된 직업을 갖춘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연령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다(은기수,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지연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이인수, 1994).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학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남자보다 힘든 현실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관련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Goldsheider & Waite, 1986).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교육과 결혼이라는 전이가 같은 시간대에서 시간경쟁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인수, 1994; Thornton, Axinn, & Teachman, 1995;). Moon(1990), Noriko와 Kim(1991)은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한계성)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취업경험은 가족이 아닌 다른 제도적 영역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역할은 결혼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경쟁하므로 결혼시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Coony & Hogan, 1991). 취업여부는 남성의 경우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ldsheider & Waite, 1986; South, 2001),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남편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계 부양자로서 역할을 담당

할 만큼의 안정적인 직업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남성의 초혼연령도 늦어진다는 주장이 있다(Cooney & Hogan, 1991; Bulcroft & Bulcroft, 1993; 최새은·옥선화, 2003). 다른 한편으로, 남자의 경우 직업은 매력적인 결혼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일찍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ite & Spitze, 1981).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잠정적으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고, 가족수입에 미치는 공헌도가 결혼시장에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므로 결혼을 일찍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수, 1994). 반면에,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교육기간이나 직업이 갖는 대안적인 매력이 오히려 결혼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Waite & Spitz, 1981; 이인수, 1994).

많은 선행연구들은 독립적으로 직업군에 따른 결혼시기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남녀모두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낮은 지위의 직업군에 속한 경우보다 결혼시기가 늦어진다고 한다(Teachman, Polonko, & Leigh, 1987). 소득은 결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시기 결정의 중요한 예측변수가 된다(South, 2001).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일종의 지참금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쉽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높을 경우 결혼을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바가 없으므로 여성의 결혼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Anderson, Hill & Butler, 1987; Teachman, Polonko, & Leigh, 1987).

결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결혼을 언제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Lesthaeghe & Surkyn, 1988),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eachman, Polonko, & Leigh, 1987). 여성은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빨랐다

(Simon and Marcussen, 1999). 결혼을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속성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전이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초혼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어길 경우 명시적, 암시적으로 끊임없는 압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Neugarten, Moore, & Lowe, 1965; 이인수, 1994). 이러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만 초혼연령에 대한 결혼규범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에게는 연령규범이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은기수, 1995).

성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비전통적인 혼외 결합에 대한 수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결혼관이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양명숙, 1996). 현대 미국사회에서는 성규범의 약화로 인해 결혼이 주는 큰 보상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결혼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본다(Oppenheimer, 1988).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결혼률이 감소하는 것은 동거율의 증가를 고려하면 상당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Surra, 1990). 벡커(1981)에 따르면 배우자는 가계생산함수에서 상호보완적인 투입요소이므로 상대적 이익이 존재하며, 자녀에 대한 욕구가 결혼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한다.

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김혜순(1982)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Beets(1997)에 의하면 교육은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부인의 이상자녀수 감소의 경제적 요인분석에 관한 김성희 외(1977)의 연구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향상, 교육수준향상 및 결혼연령의 상승과 같은 변수로 나타났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용의 불안정 및 불경기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em과 Hoem(1996)은 영국에서 1970년대 초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었으며,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에 불경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복지비용이 삭감되어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Billari and Kohler(2004)에 의하면,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적 전망은 부모의 집에 늦은 나이까지 머물게 하여 혼인연령을 상승시키고 출산율을 하강시키기 쉽다고 한다.

일부 연구들은 주거의 안정성이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혜경(2005)은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부담이 낮은 반면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저출산국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음을 통해 주거비용부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주택가격은 여성의 결혼연기 및 20~24세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misch, 1988).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가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윤희은(1996)은 자녀양육비 증가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출산율 감소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Atoh(1998) 역시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교육비 증가가 부모에 지우는 부담이 크므로 부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부부(특히,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며,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규범을 형성

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저하현상을 개별 부모의 경제적 동기 변화이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경제발전 내지는 근대화의 전개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제적 비용인식을 증대시켜 소자녀가족을 형성케 했다고 한다(조혜정, 1988). Muller(1972)도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를 갖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자녀의 효용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소자녀관 규범이 보편화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현재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Beets(199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한 태도와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여성들은 결국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려 하며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Palomba와 동료들(1997)은 남성의 가사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간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남녀평등 고취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Chesnais(2005)는 이를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s paradox)”로 칭하고 있다. 즉, 양성평등이 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기조를 형성하고 실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수준은 정비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나,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Ⅲ. 분석방법 및 변수

본 연구에서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가치관이 결혼·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동 조사는 200개 표본조사구에서 추출하여 조사가 완료한 8,489가구의 20~44세 기혼여성(3,802명)과 미혼자(2,670명)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의식이나 태도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¹⁾

가치관이 결혼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혼남녀(20~44세)의 향후 결혼 계획(결혼이행의향)과 결혼 희망 연령(결혼희망시기)을 종속변수로 각각 이용한다. 전자는 결혼 이행과 불이행의 이분법적인 속성을 가진 관계로 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한다. 후자는 연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다. 한편, 이러한 행태는 남녀간 차이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치관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다. 가임기간(15~49세)이 완료되지 않은 여성들이 분석에 포함된 관계로 출생자녀수는 현재 진형형의 출산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대자녀수는 현재 출생자녀수에 향후 출산 예정인 자녀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완결출산력(complete fertility)의 개념을 가진다. 이들 각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모형은 가치관들이 포함되기 전과 포함된 후의 두 모형으로 구분한다.

가치관 변수로는 이론적 고찰 등을 통해 파악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을 분석모형에 포함한다. 이들 각 변수는 4점 척도로 구성

된다.

결혼가치관 변수 중 결혼 필요성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부여한다.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혼에 대한 태도로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들에 대한 태도로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분석모형에는 두 변수의 값을 합하여 적용한다.

자녀가치관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자녀 필요성은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이용하며,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자녀 효용관련 변수는 각 4점 척도(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 부여)로 구성된 4개 문항을 하나의 가치변수로 합성한다. 즉, 자녀의 도구적 가치 점수(가문계승 관련 태도 점수+노후에 경제적 의존 관련 태도 점수)에서 정서적 가치 점수(부부관계의 공고화 관련 태도 점수+노후에 정서적 의존 관련 태도 점수)를 빼 자녀효용가치관의 점수를 산정한다. 산정된 결과로서 합성변수의 값이 양(+)인 경우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하며, 음(-)인 경우에는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성역할가치관 변수들로는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성분업적인 역할규범 태도)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남성 고정적인 생계책임 태도)를 분석모형에 포함한다. 이들 변수는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결혼행태에 관한 모형의 경우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 가구소득 등을 포함한다. 출산행태에 관한 모형의 경우에는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자녀양육비, 불임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상 모형에 포함하는 변수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삼식·정윤선·김희경 외(2005)를 참조하도록 한다.

〈표 1〉 다변량분석에 포함된 변수

구분		미혼남녀	기혼여성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연령(세) •지역(도시=1) •교육수준(대학이상, 전문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각 dummy화) •취업여부(취업=1) •직업군(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농업직, 생산직: 각 dummy화) •가구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세) •지역(도시=1) •교육수준(대학이상, 전문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각 dummy화) •취업여부(취업=1) •주택소유여부(소유=1) •양육비(사교육비지출/가구소득) •불입여부(불입=1) 	
	가치 변수	결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필요성(반드시 해야=4, 하는 편이 낫음=3, 해도 안해도 무방=2, 하지 않은편이 낫음=1)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필요성(반드시 해야=4, 하는 편이 낫음=3, 해도 안해도 무방=2, 하지 않은편이 낫음=1) •이혼에 대한 태도¹⁾
		자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필요성¹⁾ •자녀의 효용관련 태도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치에 대한 태도¹⁾ •자녀의 효용관련 태도²⁾
		성역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분업적 역할규범관련 태도¹⁾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관련 태도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분업적 역할규범관련 태도¹⁾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관련 태도¹⁾
종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행의향(있다=1) •결혼희망연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자녀수(명) •출생자녀수(명) 	

주: 1) 가치변수는 긍정적일수록 높은 점수 부여: 매우 찬성=4, 대체로 찬성=3, 별로 찬성 안함=2, 전혀 찬성안함=1.

2) 자녀효용가치변수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점수(가문계승 관련 태도점수+노후 경제적 의존 관련 태도점수) - 자녀의 정서적 가치점수(부부관계 공고화 관련 태도점수+노후의 정서적 의존 관련 태도점수)로 합성.

IV.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 실태

1. 결혼가치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이 보편혼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남성(20~44세) 중 71.4%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29.4%에 불과하다(표 2). 미혼여성(20~44세)의 경우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12.9%에 불과하다.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결혼관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감수하여야 할 시댁이나 직장 등에서의 애로사항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30~34세 미혼여성이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마땅한 사람 못 만나(33.3%), 자아성취(12.4%), 결혼생활 부담(10.1%) 순으로 나타난다.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다.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20~24세 미혼여성의 경우 52.9%이나 35세 이상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24.5%로 아주 낮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 방향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미혼남녀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고연령층일수록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만혼이나 평생 비혼으로 이어져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2〉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결혼 해야함	결혼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안해도 무방	결혼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명)
미혼남성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24세	34.9	43.1	17.6	1.2	3.2	100.0(562)
25-29세	29.4	43.1	22.3	2.7	2.5	100.0(480)
30-34세	26.8	41.5	26.8	2.2	2.6	100.0(272)
35-44세	13.7	34.6	42.5	4.6	4.6	100.0(153)
미혼여성	12.9	36.3	44.9	3.7	2.2	100.0(1,205)
20-24세	14.2	38.7	42.2	3.2	1.7	100.0(654)
25-29세	12.4	37.3	43.9	3.0	3.3	100.0(362)
30-34세	9.2	29.8	53.4	5.3	2.3	100.0(131)
35-44세	7.0	17.5	61.4	12.3	1.8	100.0(5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비전통적 결합형태로서의 혼전동거에 대해 미혼남성(20~44세)의 42.5%, 미혼여성(20~44세)의 55.3%가 각각 반대하고 있다(표 3). 혼전동거에 대해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혼전동거에 대한 뚜렷한 찬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비전통적 결합방식에 대한 혼재된 가치양상을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연령별로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유의도 $\alpha=0.05$ 수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혼재된 가치성향이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미혼남녀(20~44세)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2005

(단위: %, 명)

특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명)
미혼남성	11.6	45.9	32.4	10.0	100.0(1,463)
미혼여성	7.9	36.8	38.2	17.2	100.0(1,2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자녀가치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부인의 태도는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자녀를 갖은 것이 좋다’는 태도는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단위: %)

연도	반드시 가져야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계
1997	73.7	16.6	9.4	0.3	100.0(5,409)
2000	58.1	31.5	10.0	0.5	100.0(6,363)
2003	54.5	32.3	12.6	0.6	100.0(6,593)
2005	23.4	41.5	35.0	-	100.0(3,588)

주: 2005년 조사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져야 함으로, 대체로 찬성은 갖는 것이 좋음으로 분류함.

자료: 1997~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분석결과임.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20~44세)의 61.1%, 미혼여성(20~44세)의 53.8%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표 5). 이는 기혼여성(20~44세)의 64.9%에 비해서도 낮다. 자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20~44세) 19.4%, 미혼여성(20~44세) 15.6%에 불과하다. 미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은 무자녀 혹은 소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표 5〉 미혼남녀(20~44세)의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005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않함	전혀 찬성 않함	계
미혼남성	19.4	41.7	33.6	5.3	100.0(1,464)
미혼여성	15.6	38.2	39.2	7.0	100.0(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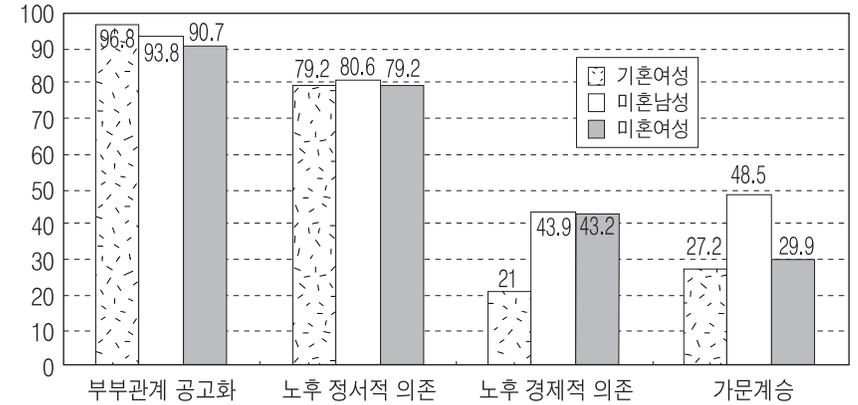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유배우여성(20~44세)의 대부분(96.8%)은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줌’에 대한 견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그림 1).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79.2%)이 우세하나, 반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보거나(반대 79.0%) 가문계승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견해(반대 72.8%)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경향이 우세하다. 즉, 자녀효용의 도구적 가치(노후 경제적 의존, 가문계승)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공고화, 노후 정서적 의존)는 높게 나타난다.²⁾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필요로 하나, 정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자녀만으로 충분하다. 결국 자녀효용가치관 변화는 저출산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자녀 효용에 대한 가치 추구도 유배우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 미래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들 사이에서도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다자녀보다는 소자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2) 조사에서 질문어귀는 다음과 같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부부관계 공고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노후 정서적 의존),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노후 경제적 의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가문계승).

(그림 1) 유배우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효용가치에 대한 찬성 태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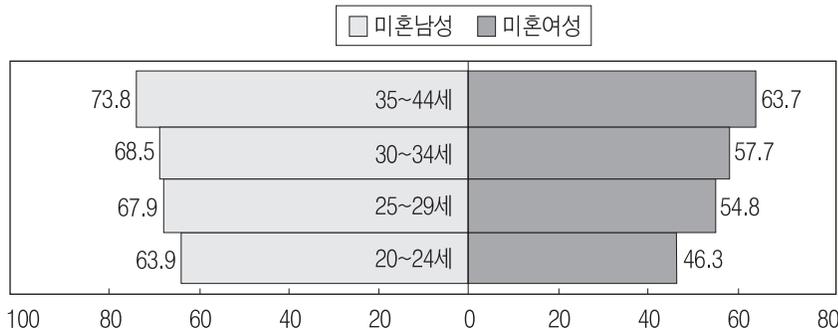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3. 성역할가치관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해 기혼여성(20~44세)의 65.8%가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성(20~44세)의 경우 찬성 67.1%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혼여성(20~44세)의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이 없어(찬성 51.0%) 동 가치에 대한 혼재된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저연령층일수록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덜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미혼남성의 긍정적인 태도는 35~44세에서 73.8%로 높은 반면, 20~24세에서는 63.9%로 상대적으로 낮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35~44세에서 63.7%인데 반해 20~24세에서 46.3%로 약 20%p의 차이가 있다. 젊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기회 확대 및 그로 인한 성평등의식의 고취는 성분업적 역할규범과 충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결혼 포기 또는 지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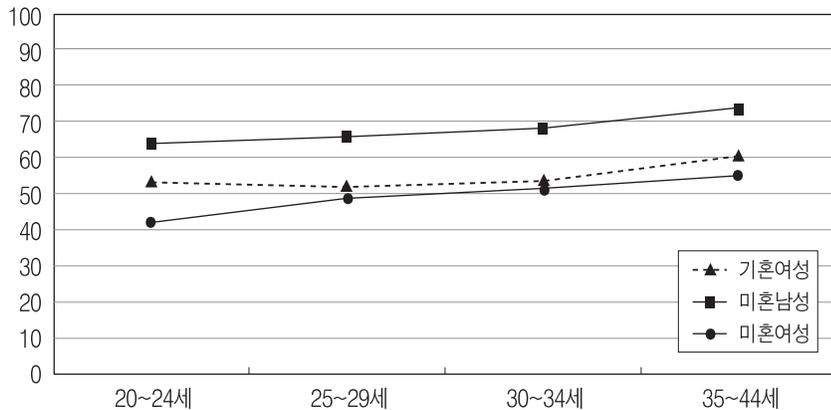
[그림 2] 미혼남녀(20-44세)의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찬성 태도 (%),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남성생계모형에 대해 기혼여성의 57.4%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다소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그림 3). 남편생계모형에 대해 미혼남성의 66.3%, 미혼여성의 45.7%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성차가 크게 나타난다. 저연령층일수록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그림 3]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찬성 태도(%),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V.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차이

1. 가치관이 결혼 행태에 미치는 영향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이행의행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치변수를 제외한 [모형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결혼이행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χ^2 검증 결과, 가치변수를 제외한 [모형1]과 가치변수를 포함한 [모형 2]간의 -2Log Likelihood 값의 차이 즉, 가치변수의 추가로 인한 모형의 변화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가치변수들이 집단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이행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결혼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결혼필요성(결혼가치관)과 자녀필요성(자녀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혼남녀의 결혼이행의행 승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미혼여성의 경우 자녀효용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우 결혼이행의행이 낮고, 남편생계모형 가치에 순응하는 경우에 결혼이행의행이 더 높다. 이는 미혼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에 덜 순응적일 경우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미혼남성의 경우 혼전동거, 자녀효용가치, 성역할(성분업적 역할, 남편생계모형)에 관한 태도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혼전동거와 성분업적 역할에 관한 태도가 결혼이행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가치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이행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는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의식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에 따라 미혼남녀들은 선택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혼남성의 경우 [모형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연령과 교육수준(대학이상), 취업여부가 결혼이행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치관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2]에서는 연령만이 유의미성을 나타낸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모형1]과 [모형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연령만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연령규범과 가치관만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은 가치관이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여건들(모형1)은 미혼남녀의 향후 결혼 시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치변수를 포함한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1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치관들 전체가 미혼남녀의 결혼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가치변수들 중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일수록 보다 빠른 시기에 결혼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거부하는 여성일수록 결혼 연령을 늦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외 다른 가치변수들의 결혼시기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고령적인 성역할 분화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증가한 반면, 실제 결혼생활은 "Marriage Package"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혼전동거, 자녀관(자녀필요성, 자녀효용가치), 성역할(남편생계모형)에

<표 6>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이행의향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미혼남성(20~44세)		미혼여성(20~44세)	
	모형1 b(S.E)	모형2 b(S.E)	모형1 b(S.E.)	모형2 b(S.E)
연령	-0.07 (0.02)***	-0.04 (0.02)*	-0.05 (0.02)**	-0.03 (0.01)
지역(도시=1)	0.19 (0.21)	0.07 (0.25)	-0.06 (0.20)	-0.13 (0.24)
교육수준(기준=중학교 이하)				
대학이상	0.76 (0.36)*	0.54 (0.44)	0.60 (0.50)	0.66 (0.58)
전문대	0.55 (0.40)	0.29 (0.49)	0.59 (0.53)	0.68 (0.61)
고등학교	-0.02 (0.34)	-0.08 (0.42)	0.12 (0.51)	0.27 (0.58)
취업여부	0.42 (0.18)*	0.23 (0.20)	0.12 (0.17)	0.13 (0.21)
직업(기준=무직)				
전문직	-1.84 (1.04)	-2.08 (1.24)	11.69 (522.4)	10.87 (522.4)
준전문직	0.37 (0.27)	0.40 (0.30)	0.22 (0.18)	0.16 (0.21)
사무직	0.08 (0.21)	0.08 (0.24)	-0.02 (0.20)	-0.04 (0.24)
농업직	0.14 (0.66)	0.08 (0.73)	0.54 (1.37)	-0.30 (1.43)
생산직	12.44 (510.0)	13.06 (727.4)		
가구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결혼가치관	결혼필요성	1.76 (0.14)***		1.87 (0.16)***
	혼전동거	0.08 (0.10)		-0.07 (0.09)
자녀가치관	자녀필요성	0.38 (0.11)***		0.54 (0.11)***
	자녀효용가치	-0.04 (0.06)		-0.15 (0.06)*
성역할가치관	성분업적 역할	0.14 (0.12)		-0.11 (0.11)
	남성생계모형	-0.10 (0.12)		0.23 (0.12)*
상수	2.78 (0.68)***	-3.86 (1.02)***	1.85 (0.73)*	-4.67 (1.02)***
-2Log Likelihood	1251.2***	948.2***	1329.7***	1018.0***
χ^2 변화	$\Delta 303.0$ ***		$\Delta 311.7$ ***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관한 태도는 미혼남녀의 향후 결혼시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에 관한 태도도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시기를 재촉하나, 고

학력과 취업 중인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늦추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취업여부와 달리, 고위직중(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결혼시기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직업군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시기에 유의미한

〈표 7〉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미혼남성(20~44세)		미혼여성(20~44세)	
	모형1 b(S.E)	모형2 b(S.E)	모형1 b(S.E.)	모형2 b(S.E)
연령	0.67 (0.01)***	0.67 (0.01)***	0.63 (0.02)***	0.62 (0.02)***
지역(도시=1)	-0.15 (0.14)	-0.12 (0.14)	-0.23 (0.18)	-0.19 (0.17)
교육수준(기준=중학교 이하)				
대학이상	-1.41 (0.30)***	-1.38 (0.30)***	0.52 (0.51)	0.48 (0.50)
전문대	-0.47 (0.33)	-0.44 (0.32)	1.46 (0.53)**	1.36 (0.52)**
고등학교	-1.08 (0.31)***	-1.10 (0.30)***	0.90 (0.52)+	0.82 (0.51)
취업	-0.72 (0.12)***	-0.67 (0.12)***	-0.39 (0.15)*	-0.37 (0.15)*
직업(기준=무직)				
전문직	3.01 (1.17)*	3.10 (1.15)**	-0.25 (1.68)	-0.24 (1.65)
준전문직	0.05 (0.16)	0.05 (0.15)	0.07 (0.16)	0.05 (0.15)
사무직	0.36 (0.14)*	0.30 (0.14)*	0.07 (0.18)	0.10 (0.18)
농업직	0.22 (0.53)	0.23 (0.52)	-0.56 (1.14)	-0.32 (1.12)
생산직	0.50 (0.98)	0.49 (0.96)	0.00 .	0.00
가구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결혼가치관	결혼필요성	-0.47 (0.07)***		-0.33 (0.08)***
	혼전동거	0.04 (0.06)		0.12 (0.07)
자녀가치관	자녀필요성	-0.10 (0.06)		0.04 (0.08)
	자녀효용가치	0.03 (0.03)		-0.05 (0.05)
성역할가치관	성분업적 역할	-0.04 (0.07)		-0.27 (0.08)**
	남성생계모형	0.02 (0.070)		-0.08 (0.080)
상수	14.78 (0.52)***	16.70 (0.65)***	13.41 (0.73)***	14.82 (0.81)***
Adjusted R ² (F분석)	76.1***	77.1***	63.6***	65.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가치관 개입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중요한 여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에 관한 태도만이 중요한 영향력이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성분업적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결혼시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혼의 중요한 여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가치관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20~44세)의 가치관이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출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연령층일수록, 유주택자인 경우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자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관계적인 것으로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도시에 거주하고,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불임을 경험한 경우에 출생자녀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2]에서 가치변수들을 추가한 후에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큰 차이가 없다. 즉, 출생자녀수에 대한 가치변수들의 영향력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큰 상관없이 추가적(additive)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치변수들이 출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혼전동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자녀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또한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책임자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더 많은 출생자녀수를 두고 있다. 반면, 이혼에 찬성할수록 출생자녀수를 덜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 가치관에 덜 순응할수록 출생자녀수는 줄어드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성분업적 역할에 관한 태도는 출생자녀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결과는 이미 결혼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결혼생활 과정에서 당초의 결혼관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후자는 성불평등이 오히려 자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이론이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들 사이에 성분업적 역할에 대한 태도가 혼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모형1)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설명력은 출생자녀수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완결출산력의 개념을 가지는 기대자녀수는 결국 이상자녀수에 근접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층간에 차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각각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이 다소 낮을 뿐, 출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치관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2]에서는 자녀필요성과 이혼에 관한 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녀 필요성이 강할수록 보다 많은 자녀수를 기대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작아, 결혼불안정성이 자녀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들의 실제 출생자녀수에 대해서는 인구사회학적 여건들뿐만 아니라 가치관들이 첨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여건들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나, 가치관들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출생자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가치관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변수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모형1 b(S.E.)	모형2 b(S.E.)	모형1 b(S.E.)	모형2 b(S.E.)
연령	0.06 (0.01)***	0.06 (0.01)***	0.01 (0.00)*	0.01 (0.00)*
지역(도시=1)	-0.15 (0.03)***	-0.15 (0.03)***	-0.13 (0.03)***	-0.13 (0.03)***
가구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수준(기준=중학이하)	-0.01 (0.05)	-0.01 (0.05)	-0.07 (0.04)	-0.07 (0.04)
고졸	-0.01 (0.05)	-0.01 (0.05)	-0.07 (0.04)	-0.07 (0.04)
초대졸	-0.15 (0.05)**	-0.15 (0.05)**	-0.12 (0.05)*	-0.12 (0.05)*
대졸	-0.24 (0.05)***	-0.24 (0.05)***	-0.21 (0.05)***	-0.21 (0.05)***
대학원 이상	-0.42 (0.10)***	-0.42 (0.10)***	-0.37 (0.09)***	-0.37 (0.09)***
취업여부(취업=1)	-0.12 (0.03)***	-0.12 (0.03)***	-0.05 (0.02)*	-0.05 (0.02)*
주택소유여부(소유=1)	0.09 (0.02)***	0.09 (0.02)***	0.06 (0.02)**	0.06 (0.02)**
양육비(가구소득대비 비율)	0.23 (0.08)**	0.23 (0.08)**	0.14 (0.07)*	0.14 (0.07)*
불임여부(불임=1)	-0.63 (0.09)***	-0.63 (0.09)***	-0.20 (0.09)*	-0.20 (0.09)*
결혼가치관	결혼필요성	0.02 (0.02)		-0.01 (0.01)
	이혼		-0.05 (0.02)**	-0.05 (0.01)**
자녀가치관	자녀 필요성	0.06 (0.01)***		0.06 (0.01)***
	자녀효용가치	0.09 (0.03)**		0.05 (0.03)
성역할가치관	성분업적 역할	-0.01 (0.02)		0.01 (0.01)
	남성생계모형	0.03 (0.02)*		0.02 (0.01)
상수	-0.30 (0.12)***	-0.75 (0.18)***	1.88 (0.11)***	1.60 (0.16)***
Adjusted R ² (F분석)	22.3***	23.5***	5.5***	6.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

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을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우선 단변량 분석결과,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결혼관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아, 적령기를 상회하는 경우 만혼이나 평생 비혼으로 이어져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전통적 결합형태로서의 혼전동거에 대해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더 보수적이거나, 전반적으로 혼재된 가치양상이 나타난다. 자녀필요성 태도는 기혼여성(20~44세) 64.9%, 미혼남성 61.1%, 미혼여성 53.8%로 미혼여성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은 무자녀 혹은 소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녀효용의 도구적 가치(노후 경제적 의존, 가문계승)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공고화, 노후 정서적 의존)는 높아, 소자녀관이 강화되어 저출산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해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은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혼재된 성향이 보인다. 그러나 저연령층일수록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덜 순응적이고,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젊은여성의 성평등의식의 고취는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결혼 포기 또는 지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다변량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

지고 있을수록 결혼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다. 미혼여성들은 자녀효용의 도구적 가치와 남편생계모형의 전통적 가부장적인 가치를 거부할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궁극적으로 이들 가치관과 연령규범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에 관한 태도가 중요하다. 실제 결혼생활이 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미혼여성들도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혼전동거와 이혼에 찬성하고, 자녀필요성이 약하고,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책임자라는 의식이 약할수록 즉,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할수록 적은 출생자녀수를 두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과 가치관 모두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 기여하나, 그 수준은 낮다. 자녀 필요성이 강할수록 보다 많은 자녀수를 기대하나, 이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작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 내지 정책적 건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결혼가치관의 약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및 결혼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미혼여성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높아진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녀가치관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계획시기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정

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령기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가치를 도구적·경제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출산친화적인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역할에 관해 미혼남녀간 의식의 괴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남녀간 의식 괴리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일견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혼여성들의 의식과 실생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 후 여성에게 출산·양육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가치관 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결혼과 가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 체계 하에서 결혼과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결혼 및 자녀, 가족 관련 내용에 오류를 수정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가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연수 방향으로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현직연수의 질 향상, 강의의 질 제고 및 연수 여건 개선, 교원연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저출산 원격 교육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원 기관간의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자녀와 결혼관에 관한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성평등이 가족생활, 직장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치관 변화를 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경제 환경 조성 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6.
- 권용은·김의철,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21~226, 2004.
- 김경신,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1998.
- 김경신·이선미,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1998.
- 김기연·신수진·최혜경,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2003.
- 김동일 편저,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1991.
- 김두헌, 『현대의 가족』, 을유문고, 1982.
- 김성희·이규식·조남훈·홍성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분석』, 가족계획연구원, 1977.
- 김양희·이형실,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영욱,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대전보건전문대학논문집』 5: 393~412, 1983.
- 김영욱,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9-43, 1999.
- 김태길,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1996.
- 김혜선·박혜인·육선화,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혜선·이정음,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41(2): 211-224, 2003.
- 김혜선·신수아,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연구 -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0(3): 41~53, 2002.
- 김혜순, 『한국부인의 이상자녀 수 감소 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김희선·성미애, 「배우자 선택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2), 1993.
- 문소정, 『가족이데올로기』,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4회 심포지움』, 1994.
- 박민자,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2004.
- 송다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25~251, 2005.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행』, 서울: 나남출판사, 1992.
- 양명숙,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1996.
- 여정성,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71~83, 1994.
- 오환일·김연화·정진희, 「연변과 한국대학생의 결혼관 비교」, 『한국여성교양학회지』 7: 81~101, 2000.
- 육선화·정민자, 『결혼과 가족』, 하우, 1993.
-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교문사, 1988.
- 유영주·김경신·김순옥, 『가족관계학』, 교문사, 2000.
- 은기수,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117, 1995.
- 은기수,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241~258, 2001.
- 이삼식·신인철·전남훈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윤선·김희경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인수,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 1940, 50년 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
- 이정우 외, 『생활문화의 예절』, (개정판)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정우 외,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이현옥 · 김양희 · 이경희, 「결혼비용 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가족문화논집』, 1993.
- 장혜경, 「가족정책차원에서 출산장려책 모색돼야」, 『나라경제』 2003년 3월호.
- 장혜경,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42(12): 13~23, 2005.
-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69.
- 조혜정 「자녀수 결정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최새은 · 옥선화,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53~73, 2003.
- 최연실,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한경혜, 「산업화와 결혼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전략의 관점에 서」, 『한국사회학』, 24: 103~120, 1993.
- 한유미 · 광혜경,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3(1): 29~40, 2004.
- Atoh, Makoto,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in Relevance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PPRC, The Mainichi Shimbun*: 117~150, 1998.
- Axinn, W. Arland Thotnton, "The transformarion in the meaning of marriage" Linda Waite(ed.), *The ries that bind*(New York : Aldine de Gruyter, 2000) ; Peter Uhlenberg, "Review of dynamics of values in fertility change by Richard Lee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0, No. 2, 2000.
- Becker, G. A., "An Economic Analyse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NBER Conference Series 11, Princeton, 1960.
- Becker, G. S.,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eets, G.,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1997.
- Billari, F. & H.-P. Kohler,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161~176, 2004.
- Bulcroft, R. A. & K. A. Bulcrof, "Race differences in attitudinal factors in the decision to mar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38~356, 1993.
- Chesnais, J.-C., 저출산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Cooney, T. M. & D. P. "Hogan, Marriage in an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First marriage among American men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78~190, 1991.
-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50.
- Ermisch, J. F., "Econometric Analysis of Birth Rate Dynamics in Britai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 563~576, 1988.

- Esaterlin, R. A., "An economic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 54~63, 1975.
- Felson, M. & S. Mauricio, "The fertility-Inhibiting Effect of Crowded Apartment Living in a Tight Housing Marke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6):1410~1427, 1975.
- Goldsheider, F. K., & L. J. Waite,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91~109, 1986.
- Hoffman, L. W. & M. L. Hoffman,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19~76, New York : Basic Books, 1973.
- Hoem, B. & J. M. Hoem,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3-4): 1~22, 1996.
- Kwon, T. H., *Population Change and Developments: 1925~1966*,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97.
- Lesthaeghe, R. & J. Surkyn,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45, 1988.
- Mincer, J.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63-97.
- Moon, O., "Urban Middle Class Wives in Contemporary Korea: Their Roles, Responsibilities and Dilemma", *Korea Journal* 30(11): 30~43.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0.
- Noriko, T. & M. K. Choe, "Changes in Intrafamilial Relationships and the Roles of Women in Japan and Korea", *NUPRI Research Paper Series* No. 58. Tokyo: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1991.
- Oppenheimer, V. K., M. Kalmijn & N. Lin,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1997.
- Palomba R, A. Menniti, & M. G. Caruso,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Pechino, 11~17 Ottobre, 1997.
- Pollak, R. A. & S. C. Watkins,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e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67~496, 1993.
- Preston, S. H., "Changing values and falling birth rates". In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uses, consequences, policies*,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87.
- Rabin, L., *The Generation Gap: wearing it well*, The Time, Jul, 29, 1965.
- Roussel, L., "Fertility and the Family". *Proceedings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Geneva 1993, Vol. I.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35~110, 1994.
- Simon, R. W. & K. Marcussen, "Marital transitions, marital belief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11~125, 1999.
- South, S. J.,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606-626, 2001.
- Surra, C. A.,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 and the Family, 52, 844-865. (1990)
-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 "Marital timing: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239~268, 1987.
- Thornton, A., W. Axinn, & J. Teachman,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xperiences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762~774, 1995.
- Waite, L. J., & Glenna D. Spitz. "Young woman's transition to marriage." *Demography*, 18: 681~694, 1981.

Summary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Lee Sam-Sik

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g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